



노동당


노동당 노동위원회

2017년 9월호(No.02)

노동당 노동위원회 | 발행인 정진우 | <http://www.laborparty.kr> | laborct@gmail.com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2층 | 전화 02) 6004-2000 | 팩스 02) 6004-2001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노동자 당원동지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삶과 투쟁의 공간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움아매고 있는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위기의 시대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튼튼하게 우리 스스로를 연결하고 함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러한 마음과 마음을 모아가며 <2017 노동자 당원대회>를 동지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노동자 당원들이 직접 한 곳에 모여 당의 노동전략을 토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동자 당원대회를 주관하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회의 주제로 <노동운동 혁신전략>과 <당 조직혁신과 노동위원회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2기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당 안팎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대회에 대해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쁜 일상입니다만,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모범노동자당원 시상식, 폐막행사의 특별한 프로그램, 그리고 진짜 단결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당원대회 웹자보 오른 편에 걸린 문구가 진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만 같다. 2016년과 전혀 다른 진짜 노동자 당원대회가 온다”. 정진우 노동위원장 

평등한 미래, 모든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노동운동

10.21(토)-10.22(일)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대강당)



2017노동당 노동자 당원대회

장소만 같다. 2016년과 전혀 다른 진짜 노동자 당원대회가 온다!

14시 개막행사 반갑게 즐겁게

15시 [1부] 발제

17시 [2부] 분임토론

19시 [3부] 종합토론

<2017 노동운동 혁신전략>

<당 조직혁신과 노동위 발전전망>

<민주노총 선거참여안>

21시 폐막행사 신나게 힘차게

본 행사 후 단결의 시간

숙박

아침 식사 후 마무리(오전 10시)

‘모범노동자당원상’을 시상합니다

상을 받아 마땅한 분들을 각 시도당(노동위)으로 추천해주세요~

주관 노동당 노동위원회

참가 문의 중앙당(02-6004-2013) 및 각 시도당(노동위)

2017 노동당 노동자 당원대회

○ 일시 : 2017.10.21(토)~10.22(일)

○ 장소 :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 (대강당)

○ 주관 : 노동위원회

○ 토론주제 : 노동운동 혁신전략
당 조직혁신과 노동위원회의 발전 전망

○ 행사 일정 ○

2017.10.21.(토)

14:00 [개막 행사]

15:00 [1부] 발제

1) 노동운동 혁신전략

2) 당 조직혁신과 노동위원회의 발전 전망

17:00 [2부] 분임토론

18:00 식사

19:00 [3부] 종합 토론

- 분임조별 토론 발표

- 노동운동 혁신전략, 민주노총 임원선거 참여 안 논의

- 노동위원회 발전전망 안 논의

- 기타 안건

21:00 [폐막 행사]

이후 단결의 시간 및 숙박

2017.10.22.(일)

08:00 기상 및 아침 식사

10:00 행사 마무리

※ 문의 : 각 시도당 노동위원회, 참가비 20,000원

들꽃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최창진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들꽃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 [들꽃, 공단에 피다]를 읽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세상이 바뀔 것만 같던 시기에 높은 광고탑에 올라간 오수일동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설 정권에 의해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광고탑 위에서 비정규불안정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에게 귀기울이는 후보는 많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광고탑위의 투쟁은 세상과 언론의 관심 밖이었고 그런 일에 대통령후보들도 관심을 가질 리 만무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세상이 바뀔 것을 기다리기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했다.

짧은 휴식시간, 힘든 노동강도, 한달에 고작 하루 쉴 정도의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인간다움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2015년 5월,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아사히글라스에 들어갔다고 하는 차현호동지의 주도로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깃발이 세워졌다. 2주만에 138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했고, 이 들꽃들은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당당하게 피어났다.

들꽃이 되려고 들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듯, 비정규직이기 위해 비정규직인 노동자도 없다. 자본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노동을 이용하기 위해 일자리란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최진석동지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상에 온통 들꽃만이 피어나고 있었고, 아사히글라스의 들꽃들은 투쟁을 시작하며 다른 들꽃과 뿌리에서부터 깊이 서로를 단단히 묶어내었다.

자본은 피어난 들꽃을 짓밟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을 설립한지 한 달 만에 해고통지를 받은 것이다. 들꽃은 들꽃이라서 짓밟히고 꺾이지만, 또 들꽃이라서 다시 일어선다.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일거다. 어떤 들꽃(이영민동지)은 노래로, 어떤 들꽃(장명주동지)은 몸짓으로, 어떤 들꽃(조리담당 째장 동지)는 영양분으로, 어떤 들꽃(조남달동지)은 이발로 옆에 있는 들꽃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내린 한 무리의 들꽃은 이제 다른 무리의 들꽃에 힘을 준다. 처음 뿌리내릴 때 다른 무리의 들꽃에게서 받은 힘을 또 다른 무리의 들꽃에 준다.

해고된 후 노조설립100일 되던 날 아사히 공장 앞에서 전국의 사내하청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철폐운동의 승리와 아사히투쟁의 승리를 염원하는 집회를 열어 아사히 동지들에게 든든한 연대세력이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고, 아사히 동지들은 다시 울산(이명재동지의 이야기)으로, 일본(민동기동지의 이야기)으로 또 다른 들꽃들의 사업장으로 연대했다. 힘차게 싸우는 다른 들꽃들과의 공동투쟁을 만들어갔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가장 앞장 서서 투쟁했다.

들꽃도 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도 노동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한 꽃은 장식일 뿐이고, 정규직노동자가 노동자인지는 잘 모르겠다. 차현호동지의 말처럼 대공장 중심의 정규직노조운동은 먹을 것과 지킬 것이 많아지면서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의식과 투쟁정신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반면에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고된 후 자본과 맞선 가장 선두에서 강한 계급의식과 투쟁정신을

가진 진정한 노동자가 되었다. 노동조합을 알기 전 사회가 요구하는 약육강식체제에 익숙하고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했던 안전식동지가 노동조합을 알고나서 노동자에게 소외와 비인간화를 강요하는 이 사회의 구조가 분노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노동자가 노동자운동을 통해 삶의 주인이자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노동자가 되고 싶다는 이 동지의 이야기는 아주 인상깊다.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일터로 돌아가는 일은 멀어보인다. 우리는 이 동지들의 복귀가 멀어 보이는 이유를 아사히자본의 태도보다는 노동자운동과 우리에게 대한 성찰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당
노동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투쟁,
아사히비정규직자의 이야기



들꽃,
공단에
피다

아사히비정규직자의 지음
2017년 5월 29일 출간
15,000원 | 한티재

2015년 5월 구미공단에 최초로 설립된 비정규직 노동조합.
외국인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조를 만든 지 한 달 만에 170명 조합원들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날부터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희망퇴직 회유와 농성장 강제철거 등 많은 시련을 겪으며, 현재 스물두 명의 조합원들이 남아 투쟁하고 있다.

구미문의 010-5874-8564 (김정태) 010-6259-8410 (남기용)
후원계좌 국민은행 909202-00-000499 (한진석)
이메일 asahibook2017@gmail.com

『들꽃, 공단에 피다』
- 세상을 바꾸는 투쟁,

구미공단의 첫 비정규직 노동조합, 아사히 비정규직자의 이야기

해고와 탄압에 맞서 투쟁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당당한 노동자들의 이야기

문의 : 010-5874-8564 (김정태)
010-6259-8410 (남기용)



노동위 활동

노동위원회



KT민주화연대 출범식 참가 및 KT지사 앞 출근 선전전 진행 중 9월 13일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KT그룹 적폐 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 공공성 실현! KT 민주화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이갑용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모인 KT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했다. ‘KT 민주화연대’는 9월 20일부터 전국에 있는 KT지사 앞에서 매주 수요일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당의 시·도당도 참여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부 필리버스터 참가 9월 7일 정진우 노동위원장이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동과 지역이 LG유플러스의 책임을 묻다 12시간 이어말하기’에 참여했다. LG유플러스지부는 9월 1일 본사 앞에서 ‘생활임금 보장과 내근직 임금안 설계,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서울노동위원회(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참가 9월 7일 은평당협 최승현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가 주최

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해 발언했다. 센터 노동자 9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담당자 횡령사건이 불거진 뒤 위·수탁계약 해지로 이달 9월 30일 해고를 당했다. 보건소는 8월 25일 센터 전 직원에게 “9월29일 위·수탁계약을 종료한다”며 “10월16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통보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공고를 냈다.



고대병원·세브란스병원, 약덕 용역업체 대가비엠 엄중 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 9월 21일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약덕업체 대가비엠 엄중 조사 촉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기자회견에 신희철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서경지부는 지난 2월에 20년 간 불법수의 계약에,

복수노조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악덕업체 대가비엠의 퇴출을 고대의료원에 촉구한 바 있다.

인천노동위원회(준)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 지회 연대 8월 16일 ‘동광기연 공장매각 정리해고 무효, 고용승계 투쟁승리를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주최 2차 연대집회에 참가해, 커피연대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결의 대회를 동광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광기연은 올해 1월 19일 동광기연지회 몰래 기계 설비를 매각하고, 1월 23일 지회 조합원 62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동광기연지회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인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울산노동위원회



현대차비정규직 2차 하청업체 진우3사 노사합의 8월 22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급 자택대기 시키는

신종 노조탄압에 맞서 1년 5개월 동안 싸워 온 현대차비정규직 2차 하청업체 진우3사 노동자들의 투쟁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다행히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8월 25일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현대차비정규직 경리노동자 투쟁지시 현수막 게시 전환배치에서 배제된 현대차비정규직 경리노동자의 투쟁을 지지

하는 연대 현수막도 게시했다.



전면파업 돌입한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자 연대 9월 14일부터 전면파업을 진행 중인 울산대학교병원 노동자 투쟁에 연대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임금인상,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환자편의 확대, 단협갱신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충남노동위원회



동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도당노동위원회는 9월 12일 천막농성에 결함하여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노동위원회



통사고로 다쳤지만 산재나 공상이 아닌 병가를 쓰게 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출근을 종용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9월 22일 유가족·대책위와 우정사업본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사망 관련 진상규명 등에 합의 했다.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인력충원 등 집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투쟁에 함께 할 계획이다.



웁아매고 있는 교육청을 향한 투쟁 중이다. 광주시당은 3년째 투쟁에 연대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교육청 앞 피켓 시위에 함께 하고 있다.

대구경북노동위원회



서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즉각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농성에 돌입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수요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당은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구미당협과 함께 지지현수막을 게시했다. 한편 9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아사히글라스는 11월 3일까지 하청업체 1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 연대 그동안 도당노동위원회에서 연대해 오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해고노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대책위 참가 서광주 우체국은 고인이 배달 중 교

교육공무직 유치원 노동자 투쟁 연대 교육공무직 유치원 노동자들이 상시근무지만 기간제라는 굴레로 노동자들을

아사히 자본 기소 촉구 기자회견 참석, 지지현수막 게시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지난 8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



교육공무직 경북지부 노숙농성 돌입, 경북도당 연대 9월 2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가 ‘경북도교육청 공동교섭거부 규탄 및 근속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경북도교육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 매일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당도 노숙농성장 방문 등 연대하고 있다.

경기노동위원회(준)



회복지관 성차별·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성차별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홍갑표 전 관장이 명예훼손으로 대책위를 무더기 고소했다. 대책위는 매주 금요일 집회를 하고 있다.



지학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준)’이 발족했다. 경기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정당, 지역단민주노총 경기본부, 공공운수노조, 정당, 지역단체들이 연대해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노동위원회(준)



요구’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이후 지부는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은 교육부에서 진행된 집단교섭의 후퇴안과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시안 제출로 인해 시작되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본급 소급적용과 급식보조원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18일 농성에 들어간 제주지부는 25일 전조합원 승리투쟁 집회를 개최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성차별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촉구 기자회견 관련 대책위 무더기 고소 8월 18일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학대, 완전공영제 시행 경기공동행동(준) 발족 9월 4일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기자회견 및 농성 연대 지난 18일 노동당 제주도당은 ‘근속수당 차별 해소 및 임단협 체결